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 형사입건 388명, 위조상품 14만여점 압수, 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 》

구 분	'21	'22	'23	'24	'25
형사입건(명)	557	372	234	307	388
압수물품(점)	78,061	375,583	122,400	176,273	142,995
정품가액(억원)	415.1	425.8	278.6	134.3	4,325.9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10.9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25.6월, 39천여점, 정품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25.5월, 46천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25.7월, 23천여점, 정품가액 2.5억원)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하였다.

또한 K-팝 인기로 인한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25.8월)되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하였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7천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붙임1]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청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식재산청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상표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 주요 단속 사례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김종수 (042-481-5959)
		담당자	사무관	장대현 (042-481-8505)

□ 품목별 압수물품 순위(압수물품수 기준)

(단위 : 점, 억원)

순위	품목	물품내역	압수물품	정품가액
1	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벨트 등	39,372	3,788.7
2	화장품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10,601	19.6
3	의류	의류, 모자, 목도리 등	9,584	40.7
4	가방	가방, 캐리어, 지갑, 골프백 등	6,555	340.4
5	신발	신발, 구두, 슬리퍼, 운동화 등	284	4.2
6	시계	손목시계 등	135	94.8
7	기타	부자재, 안경, 자동차부품, 폰케이스, 키링 등	76,464	37.5

□ 브랜드별 압수물품 순위(정품가액 기준)

순위	브랜드명	권리자(국적)	물품 내역	정품가액
1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스위스)	장신구	1,846
2	CARTIER	까르띠에(스위스)	장신구, 시계, 가방	1,425.2
3	Christian Dior	디올(프랑스)	장신구, 가방, 의류, 신발	284.7
4	CHANEL	샤넬(프랑스)	장신구, 가방, 의류, 신발, 시계, 화장품	195.6
5	 HERMES	에르메스(프랑스)	장신구, 가방, 신발, 의류, 시계	181.1



2025년 상표법위반 사건 주요 수사사례

25년 단속결과 입건 388명 / 압수물 142,995점(정품가액 약 4,326억)



**명동 외국인 대상
위조 가방 의류 지갑
판매업소 단속**

압수물 3,544점
(정품가 200억 상당)



**해외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유통업자 단속**

압수물 46,174점
(정품가 20억 상당)



**역대 최대규모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단속**

압수물 39,380여점
(정품가 3,400억 상당)



**위조 K-POP 굿즈
온 오프라인
기획 단속**

압수물 29,111점
(정품가 5억원 상당)



**위조 명품가방·지갑
조립키트
유통업체 단속**

압수물 21,266점
(정품가 20억원 상당)

위조상품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유사유사)

